

# 주간 테러동향

## Weekly Terrorism Trends

'22. 06. 24(금)

###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 유럽

##### ○ 英, '암호화폐 불법송금' 차단 목적 개인정보 수집계획 철회

- 6.21 英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통한 '테러 자금송금' 등 불법금융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암호화폐 실명 거래 의무화 법안'\*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

\* 한국에서 既 시행중인 「특정 금융정보법」과 유사한 법령으로, 영국 內 암호화폐 거래 시 수취인과 발신인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는 법령

#### 미주

##### ○ 美, 現 '이민자 정책' 반대세력 자행 국내 테러위협 우려

- 6.14 美 국토안보부(DHS)는 '국가테러경고시스템 경보\*' 보고서에서 이전 정권에 비해 완화된 現 정부의 美-멕시코 국경통제에 대한 반대 세력의 인종차별과 폭력행위 증가가 예상된다고 관련 테러위협 경고

\* '15년부터 美 DHS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테러위협 및 관련정보 등 제공

##### ○ 美, 버펄로市 총격범 '증오범죄' 혐의 기소

- 6.15 법무부는 버펄로市 슈퍼마켓 총기난사 사건(5.14, 사망 10)의 범인 「페이트 젠드런」에 대해 연방 증오범죄 및 무기 불법소지 등 26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

\* 법무부는 일부 혐의만 인정되어도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부언

##### ○ 美, 러시아 민족주의 단체 관계자 제재(뉴시스)

- 6.15 美 재무부는 러시아 민족주의 폭력 단체 '러시아제국주의운동(RIM)\*' 유럽 지부 대표 「스타니슬라프 세브추크」와 同 국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VK를 통해 RIM 자금을 모은 「알렉산드르 주츠코프스키」를 제재

\* 美 재무부는 同 단체가 테러리즘 관련 훈련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특별 국제테러리스트로 지정('20.4월)

## 아 · 태평양

### ○ ISIS, 아프간 시크교 사원 테러 배후 자처

- 6.18 아프간 카불市 소재 시크교 사원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했으며, 사건 직후 ISIS는 “무함마드에 대한 인도 집권당 정치인의 모욕적 발언에 대한 응징이었다”며 배후를 자처

### ○ 파키스탄, 대테러 군사작전 전개 과정 반정부 조직원 6명 사살

- 6.19 파키스탄 軍은 최근 발로치스탄州 파룸 지역 부근에 테러단체 은신처가 존재한다는 첩보를 입수, 대테러 군사작전을 전개해 발로치해방전선(BLF) 조직원 6명을 사살했다고 발표

\* 同 무장 조직원들은 정부 軍 호송대 및 검문소 공격에 연루

## 중 동

### ○ 시리아, 美軍 주도 연합군 ISIS 고위 간부 생포

- 6.15 美 국방부는 자국군 주도 연합군이 시리아에서 군사작전을 전개, ISIS 폭발물 제조 전문가이자 對美 테러를 주도한 「알 쿠르디」를 생포했으며 민간인 또는 군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

## 아프리카

### ○ 소말리아, 알샤바브 대원 47명 사살

- 6.17 소말리아軍은 자국 중부 갈무두그州 마을에서 알샤바브의 차량 이용 자살 폭탄테러 공격을 받았으며, 대응과정에서 해당 테러 조직원 47명을 사살했다고 발표

\* 이 과정에서 군인은 물론,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등 총 6명 사망

이라크, 바그다드 알-킬라니(al-Khilani) 사원 자살폭탄테러

- '07.6.19, 이라크 바그다드 소재 시아파 알-킬라니 사원 앞에서 테러범이 60개의 프로판 탱크를 탑재한 트럭을 폭발시켜 본인 포함 최소 78명 사망·218명 부상
  - \* 폭발로 사원 벽과 건물이 파괴되고, 주변 상점 25곳 및 차량 20여대 파손
- 이번 공격은 지난 4월 바그다드 중심가 시장에서 127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차량 폭탄테러 이래 가장 치명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으나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미등장
- 사건 발생 직후, 이라크 「알-말리키」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聖地 침탈, 무고한 인명 살상, 종파간 폭력사태를 촉발하기 위한 타크피리스(Takfiris)와 테러범들의 적대적 소행이다”라고 비난
- 이런 가운데, 美軍과 이라크軍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 美軍 대변인 「크리스토퍼 가버」는 “이번 공격은 현재 이라크 내에서 진행중인 군사작전(Arrowhead Ripper)은 물론, 다가오는 여름에 실시 예정인 또 다른 작전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
  - 이라크 「카심 아타」 장군은 “이번 공격은 그간 불순세력들이 주로 바그다드 외곽에서 자행하던 차량 폭탄공격의 지리적 목표를 수도 내부로 설정하는 ‘전술 변화의 신호’이다”라고 평가
- 한편, 이라크 당국과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反인륜적 테러’라고 규탄하며, 종파간 폭력사태 가능성에 따른 위협 고조에 촉각

## 테러 상식

## Weekly Terrorism Trends

## &lt; 타크피르(Takfir) &gt;

- **(정의)** 타크피르(Takfir)는 이슬람에서 다른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파문되는 것, 타크피리(Takfiri)는 다른 무슬림을 변절자라고 비난하는 이슬람교도들을 의미하고, 타크피리즘(Takfirism)은 배교자로 선언된 다른 이슬람교도들의 살해를 조장하는 소수 이데올로기 즉, 진정한 이슬람의 테두리를 벗어난 ‘카피르(불신자)’를 이슬람공동체에서 내쫓는 것을 의미
- **(테러단체와의 관련성)**
  - ISIS는 他 종교는 물론 내부 반대자나 ISIS에 맞서는 무슬림도 카피르로 간주해 테러를 자행하거나 살해, 또한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크피르를 극단적으로 적용해 테러를 자행
  - ISIS는 시리아 내전에 참여해 ISIS에 맞서는 무슬림도 카피르로 규정해 살해
  - 알카에다(al-Qaeda) 또한 ISIS의 타크피르의 종교적 신념을 일부 공유